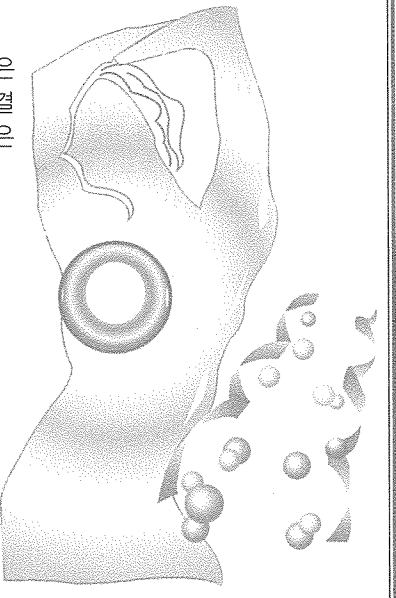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 유방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유방암 유소견 현황(1999년 5월 중)

암 검진인원	지 부 별	유방암 유소견자(30명)	유방암 확진자(4명)
23,733명	서 울	13명	3명
	인 천	5명	1명
	강 원	2명	
	전 북	5명	
	광주 · 전남	1명	
	경 북	1명	
	경 남	3명	

유방암 발견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박○○씨(57세), 김○○씨(39세), 박○○씨(47세) 등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종합검진센터에서 유방암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으로 확진되었다. 이들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절제 수술 등을 받은 후 약물치료, 항암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유방암이란

- 여성의 가장 활발한 활동기인 40대에 호발하는 유방암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조기에 수술을 받으면 경과가 좋은 암 중의 하나다.
- 유방암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음식물의 지방섭취, 비만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질적인 소인과 직계가족에 유방암이 있으면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 또 한쪽 유방의 암 수술을 받은 사람은 반대편 유방의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우연히 발견되는 무통성 종괴가 유방암 증상 중 가장 흔한 소견이다. 유방암에서 생기는 종괴의 특징은, 한쪽 유방에만 있으며 촉감이 단단하고 표면이 불규칙하며, 주위 정상 유방조직과 경계가 불명확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유방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연령 · 임신 · 분만 · 수유 · 초경 및 폐경 여부와 가족력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조심스런 시진과 촉진, 주기적인 자가진찰과 정기적 진찰로 유방암의 조기발견이 가능하며, 유방암에 의한 사망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자가검진을 포함한 조기진단임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유방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매월 자가진찰을 하고, 특히 40대 이상의 주부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발견하도록 해야 한다.